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녹)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5년 11월 16일(제2160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화(5pm~8pm),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애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3,19-20ㄴ

화 답 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3,7-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21,5-19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성가]									
	8시	입당	48	봉헌	446	성체	31	파견	436
	11시	입당	403	봉헌	귀를 기울여라	성체	404	파견	405

연중 제33주일	11월 16일(주일)		11월 18일(화)	11월 19일(수)	11월 20일(목)	11월 21일(금)	11월 22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장희숙 루시아	황혜정 데레사	정미경 말가리다	황혜정 데레사	장희숙 루시아	이은자 마트로나	성령 기도회
독 서	정기환 레안텔 정미경 말가리다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정기환 레안텔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즈	성령 기도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 가브리엘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연도주송	장희숙 루시아	채성일 토마스	정미경 말가리다	황혜정 데레사	장희숙 루시아	채성일 토마스	이명국 바오로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11월 위령 성월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 매 미사 20분 전에 연도(2양식)를 드립니다.

■ 대림시기
-11월 30일(일)은 대림 제1주일이 시작됩니다.
대림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 대림 제1주일 교중미사 중에 성수 축복예식이 있습니다.
- 어려운 이웃들과 성탄 선물 나눔을 원하시는 분은 제단 위 성탄트리 밑에 선물을 두시면 성탄절 즈음에 노숙자 숙소에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교중미사 후 레지오 총친목회와 구역별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11월 성경 통독
- 티모테오 2서, 1,1-2,26

■토요일 미사전례
- 11월 22 일(토) , 젊음이 넘치는 음악팀

■봉성체 안내
- 11월 20일 목요일: 실버/알라매다/오클랜드 구역

■故 이숙강 엘리사벳 자매 장례 미사
-장례미사:11월 21일(금) 오전 10시, 성당
-하관예식:11월 21일(금) 오후 12시 30분
Gate of Haeven
22555 Cristo Rey Dr, Los Altos, CA 94024

■젊음이 넘치는 음악팀과 함께 하는 음악 피정
-일시: 11월 22일(토) 오전 10시~12시(미사로 시작)
-**당일 토요일 미사는 오전 10시**에 합니다.
-대림 시기를 준비하며 "너는 복이 되리라" 말씀과 성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 음악 피정 후 친교실에서 점심 나눔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미사 및 안내
- 추수감사절 미사 : 11월 27일(목) 오전 11시
- 추수감사절 식사 : 당일 미사후 친교실
*음식 나눔을 함께 하실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 한국학교 학예회 발표
- 일시: 12월 13일(토), 오전 11시 미사 후
- 당일에 한국학교 기금모금이 있습니다.
한국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분이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한국 학교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헌금 안내
- 오늘 미사 중에 인권 후원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모임 및 회의
- 오클랜드: 11월 16일 오후 12:00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타: 11월 16일 오후 12:00 교육관 107호

■ 밥나눔 안내
- 이번주는 밥나눔이 없습니다.
- 다음번 밥나눔: 11월 23일(일), 넷째 주일
- 문의 :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오일공-삼칠오- 오일사칠)

■ 공동체 기도 지향
이번 주 목요일(11/20일)까지 공동체기도 지향은 이숙강 엘리사벳 자매님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 바치겠습니다.
+ 주모경
+ 주님 이 엘리사벳에게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 이 엘리사벳의 영혼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 기도 지향>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장민우,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임희숙세트리다, 이수인, 조지현 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최혜자벨라데다

■정수기 사용 안내
-. 정수기 자체를 움직이거나 흔들지 마세요
-. 마시다 남은 물은 정수기 옆 양동이에 버려주세요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⑤ 게이트 출구에서 좌우 살피고 운전하기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마가렛(11/16) -엘리사벳(11/17)
- 에드몬드(11/20) -세실리아(11/22)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특집] 첫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Dilexi Te)」로 보는 가난

"가난한 이웃 돌보는 일, 교회 사명의 불타는 심장"

가톨릭교회는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낸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되새기고,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보여 준 자비와 연민을 본받고자 노력한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발표한 첫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Dilexi Te)」는 불평등과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다시금 강조한다. 교황 권고가 전하는 가난의 개념, 가난한 이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알아본다.

빈곤의 다양한 형태

교황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Dilexi Te)」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 권고의 전체 주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love for the poor)'이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교황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이 곧 가톨릭교회의 '나침반(Compass)'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되고 가난한 메시아(The True Poor Messiah)'이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구유에서 태어나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병자들에게 가까이 계셨다고 소개하는 교황은 이처럼 예수님 삶의 모든 측면에 가난이 스며들어 있음을 전한다. 한다. 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면서 "가난한 이들과 동반하는 일은 언제나 교회의 중심 활동이었다"고 강조한다.

물질적 가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인간답지 못한 조건에서 겨우 생존하는 현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문화에 맞설 것을 요청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가난(New Forms of Poverty)'에도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의 빈곤 외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신의 존엄성과 능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빈곤, 도덕적·정신적 빈곤, 문화적 빈곤, 개인적 또는 사회적 허약함이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빈곤, 권리와 공간, 자유가 없는 다양한 이들의 빈곤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부를 증대시키면서도 공정성을 높이지 않는 경제 법칙에 의해 보다 '더 미묘하고 위험한(More Subtle and Dangerous)'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잊는다면 '교회 삶의 커다란 흐름(The Great Current of the Church's life)'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교황은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교회 사명의 불타는 심장(The Burning Heart of the Church's Mission)'이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가시적인 증거"라며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복음 선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신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선(Almsgiving)'에 대해 언급하며, "자선만으로 세계의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소한 무엇인가는 하는 편이 언제나 낫다"는 표현으로 자선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청했다.

자선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피하게 해 주고,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과의 접촉, 만남, 공감의 순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자선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한 이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이런 삶의 선택은 복음적 삶의 가장 높은 형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교황은 또한 복음 선포를 사회적 참여로부터 분리하고, 이 문제를 정부에 위임하려는 교회 내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시장(Invisible Market)'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자유경제 논리를 경계하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상에서 다수의 가난한 이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 가난하다고 보는 왜곡된 관점을 지적한 뒤 "신자 중에도 가난한 이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한 이들을 소홀히 하는 어떤 교회 공동체도 붕괴 위험에 처하며, 비생산적인 회의와 공허한 말로 위장된 '영적 세속화(Spiritual Worldliness)'에 빠져 표류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교황은 권고의 결론을 통해, 고통받고 곤궁한 이들의 얼굴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써 생겨 나는 빛과 생명에 참여하자고 신자들을 초대하고, **가난한 이들은 사회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Flesh of Christ)'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4 가톨릭 신문 발췌>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1명	197명	238명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s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옥준(9-10), 최경숙(9-10), 김상윤(10-12), 김향진(10-12), 이순열(5-8), 김옥(1-12), 손순옥(9-12), 이욱경(11), 김복희(11-12), 지영남(9-12), 조우송(12), 박정연(10-12), 조신원(11), 김현규(9-12)						한경화 김아룡		이욱경	이욱경 조우송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11/16(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11/16(일)**	생	유인웅 다윗	이범준 요셉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유인웅 다윗	조 프란치스코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정성룡 프란치스코	이범준 요셉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양신옥 안나	조 프란치스코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안나/요아킴 회원들	김상실 가를로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채성일 토마스	김상실 가를로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11/18(화)**	연	최정자 젬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김준철 어거스틴	김 젤뚜르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김영자 세실리아	장철호/송아네스
	연	김마르코	가족		연	김순기 루갈다	정레안텔/말가리다
	연	박종섭 요셉/정율리안나	가족		연	이숙강 엘리사벳	장루시아
	연	김정희 율리엣다	가족		생	양웨인	이욱경 글라라
	연	김요셉/안나	자녀들		생	백카렌	이욱경 글라라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쓰		생	유인웅 다윗	이바오로
	연	김만옥 요안나	윤루카/루시아		생	유인웅 다윗	이범준 요셉
	연	윤Dana 요한	윤사비나		생	유인웅 다윗	조프란치스코
	연	태아들의 영혼	박명호 실비아		생	정성룡 프란치스코	이범준 요셉
	연	김순기 루갈다	정분다		생	양신옥 안나	조프란치스코
	연	김순기 루갈다	정레안텔/말가리다	**11/19(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김순기 루갈다	김상실 가를로		연	이숙강 엘리사벳	장루시아
	연	김재복 요한	김케넷가족		생	유인웅 다윗	이바오로
	연	김 베로니카	김케넷가족	**11/20(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김 엘리노이	김케넷가족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나
	연	연옥영혼을 위하여	이에스터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김병규	지베레나		연	이성일	이은주 아그네스
	연	부모님	박시몬/세레나		생	유인웅 다윗	이바오로
	연	최복남	박상일 시몬		생	유인웅 다윗	이범준 요셉
	연	박정선	박상일 시몬		생	정성룡 프란치스코	이범준 요셉
	연	정요셉	정분다	**11/21(금)**	연	부모님	박시몬/세레나
	연	서데레사	정분다		생	유인웅 다윗	이바오로
	연	김요한	정분다	**11/22(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홍모니카	정분다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김주현	김현자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양은아	김현자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연	김현정	김현자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황미데자 데레사	가족		생	유인웅 다윗	이바오로
	연	차창섭 예르니모	차리디아		생	유인웅 다윗	이범준 요셉
	연	박영옥	차리디아		생	정성룡 프란치스코	이범준 요셉
	연	부모님	차리디아		생	권마가렛	권마가렛
	연	이건용 요셉	임 비비안나		생	한윤정 아가다	최명주 젬마
	연	김병규	임 비비안나		생	김태용 요한	최명주 젬마
	연	김광근 도미니코 신부님	임 비비안나		생	김영희 엘리사벳	빈첸시오
	연	고영환	박경숙 율리안나		생	박명호 실비아	빈첸시오
	연	김복희 안나	박경숙 율리안나		생	박상일 시몬	빈첸시오
	연	정재용	박경숙 율리안나		생	이기하 비오	빈첸시오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가족		생	이욱경 글라라	빈첸시오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김광석 베드로		생	이명란 아네스	빈첸시오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임유지 비비안나		생	이소지 마리나	빈첸시오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나		생	임유지 비비안나	빈첸시오
	연	정창희 베드로	정흠 요셉		생	유인웅 다윗	빈첸시오
	연	강평길	강성진 가브리엘		생	신긍진 요한	빈첸시오
	연	이숙강 엘리사벳	장루시아		생	조우송 요안나	빈첸시오
	연	김윤정 바오로	이성재 바오로		생	지창민 시몬	빈첸시오
	연	이경 마리아	이성재 바오로		생	채성일 토마스	빈첸시오
11/16(일)	생	황성국 베드로	황선희 세실리아		생	최명주 젬마	빈첸시오
	생	김영희 엘리샤벳	이에스터		생	추혜성 소피아	빈첸시오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임유지 비비안나		생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	빈첸시오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김상실 가를로		생	박미숙 세실리아	이영길 안드레아
	생	조현석 프란치스코	김상실 가를로				